



벤처산업협회, 한국T기업연합회 전격 통합 합의

- 양 단체 통합으로 제2 벤처부흥기틀 마련
- 통합단체명칭은 벤처산업협회로

벤처산업협회(KOVA, 회장 백종진)와 한국T기업연합회(KOBA, 회장 서승모)가 전격 통합한다. 양 단체장은 23일 만나 단체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통합합의서〉를 체결하였다.

백 회장은 “벤처기업을 둘러싼 내외적 경영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벤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대정부 창구의 단일화를 도모하고 회사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통합했다”고 밝혔다.

서 회장은 “IT와 바이오 등 기술혁신형 기업간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전통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시장창출에 역량을 결집하기 위하여 통합했다”고 밝혔다.

양 단체는 통합단체 명칭을 (사)벤처산업협회로하기로 하였다. 이는 벤처기업 고유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한편, 3만 4천여 벤처기업을 대변하는 총괄단체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새로 태동하는 벤처산업협회는 유사 벤처관련 산업별 협회와 지역기반협회 등을 점진적으로 통합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편, 양단체는 ▲ 양단체 회원, 사무국 인력 및 자산 등은 통합 시점에서 자동 승계한다 ▲ 통합단체의 과도기간은 내년 2월 정기총회 때까지로 하며, 그동안은 양단체 회장이 공동회장직을 수행하고, 임원의 수는 100명 이내로 하고 임원구성 등 구체적인 사항은 양 단체간에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 현재 양 단체에서 추진 중인 정부위탁사업 및 자체사업 등은 발전적으로 승계 추진한다. 단 정부과제사업 등 대외계약관계 등을 고려하여 통합단체의 차년도 정기총회까지는 양 단체 사무국의 사업·예산은 독립채산제로 운영한다 등 공동합의사항을 도출하였다.

양 단체는 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실무위원회를 바로 구성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하여 양 단체의 사업체계, 재무상황 등 실사를 거친 후 새로운 체계를 구축을 위한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양 단체는 통합을 의결하기 위한 임시총회를 오는 8월 13일경 각자 개최하기로 하였다.



협회-한국발명진흥회, 중소·벤처기업 판로지원을 위한 업무협력 체결

협회와 한국발명진흥회(www.kipa.org)는 8일(화) 중소·벤처기업의 우수 제품에 대한 판로개척 및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업무협력약정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우수 제품을 보유하고도 시장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공공사업 추진기관간 업무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식, 양 기관의 상호 공조를 위해 합의되었다.

이번 협약을 통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제품은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운영 중인 특허상품 쇼핑몰인 “바이인벤션(www.buyinvention.com)”과 “우선구매추천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받게 되었으며, 30여개의 국내 유명 쇼핑몰에도 자동 입점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전대열 협회 상근부회장은 “이번 한국발명진흥회와의 업무협력을 통하여 중소·벤처기업의 판로개척과 유통촉진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 기관이 더욱 협력하여 중소·벤처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발명진흥회는 발명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발명가의 이익 증진을 도모하고, 국내 지식재산산업을 보호·육성하며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된 기구이다. 주요업무로는 발명장려, 국제협력사업, 우수학생 발명인재 양성, 특허기술 자금지원사업, 특허기술평가 및 특허정보지원, 특허기술거래 및 판로개척 지원, 지역지식재산 창출사업, 지식재산교육활성화, 온·오프라인 교육수행 등이 있다.

본 지원서비스를 받고자 할 경우 브이마켓(www.v-market.co.kr), 구로몰(www.guromall.com)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또는 벤처산업협회(www.kova.or.kr)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벤처산업협회(02-890-0623)로 하면 된다.